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8/24℃ 목포 18/24℃ 여수 19/24℃

단기 4342년 (음력 8월 10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484호 1판 2009년 9월 28일 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남광주시장 추석 대목 북적

추석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7일 새벽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에는 선물과 제수용품을 사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우 과열 사육 큰일난다

가격 폭등에 전남 송아지 입식 급증

큰소 되는 2년 뒤 소값 대폭락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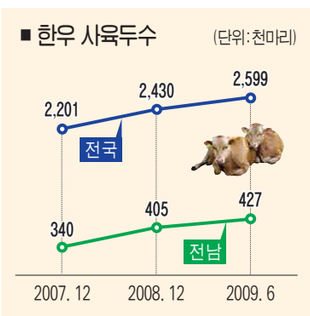
최근 한우가격 폭등으로 전남도 내 축산농가들의 송아지 입식이 급증하면서 소값 폭락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우가격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이 지속하면서 송아지 입식을 늘리는 한우 사육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9월 현재 700kg 기준 한우 수소 경매가격은 7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0%가량 올랐다.

한우가격 폭등에 따라 송아지 입식을 늘리려는 축산농가들도 급증하면서 송아지 가격도 급상승하고 있다. 9월 현재 6~7개월령 수송아지 산지가격은 270만 원, 암 송아지는 24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58%가량 상승했다.

4~5개월령 송아지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만~100만 원이 올랐다. 송아지 가격 상승은 최근 입식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송아지 생산량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등 수급불균형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송아지 입식 농가가 늘면서 전남지역 한우 사육두수도 크게 늘었다.

9월 현재 전남지역 한우 사육 수는 42만7천 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 39만 마리에 비해 9.4% 증가했으며, 이 같은 증가 추세면 오는 11월께는 48만4천 마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 한우 사육 수도 적정 수인 240만 마리를 넘어 9월 현재 264만 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6년 284만 마리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 때문에 현재 입식한 송아지가 다 자라 출하되는 18~20개월 후에는 한우 출하량이 넘치면서 소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산지 소값 동향과 쇠고기 가격 전망'연구를 통해 이달 265만 마리 정도인 한육우 사육 수가 2010년 281만 마리, 2011년 295만 마리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소 산지 가격은 올 연말 420만 원에서 2010년 410만 원, 2011년 390만 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 8월 평균 230만 원인 수송아지를 입식해 2011년 출하할 경우 마리당 월간 소득은 비거세우 4만8천 원 적자, 거세우 3만2천 원 흑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사료 값 인상 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도 만만치 않아 소규모 축산농가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일선 시·군에 축산농가들의 송아지 입식 자제를 지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장원리에 의해 사육 마리가 늘어나면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좋다고 무리하게 사육규모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자 심리

6개월 연속 장밋빛

광주·전남지역의 소비자 심리가 6개월 연속 호전되고 4분기 소매 유통업 체감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 365가구를 대상으로 '2009년 9월 소비자동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SI)가 119로 전월(117)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달보다 10포인트 상승한 96을 기록한 이후 5월 108, 6월 110, 7월 112, 8월 117 등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것이다.

개별지수를 보면 현재생활형편 CSI는 102로 전달(101)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고 6개월 후의 생활형편에 대한 예상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전망 CSI도 113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현재경기판단 CSI는 115로 6개월 연속 개선되면서 전달(114)에 이어 최고치를 경신했고, 향후경기전망 CSI는 121로 3포인트가 하락했지만 5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초과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가 등 물가수준(3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수출·환율 등 대외요인(22%), 고용 사정(17%), 국내소비(17%)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 등 광주지역 1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결과에서도 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104로 나타나 지난 분기(103)에 이어 2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넘어섰다.

CSI와 RBSI 모두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나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백화점(112), 대형마트(106), 전자상거래(106)의 경우 4분기 전망이 기준치를 상회할 것으로 조사된 반면 편의점(92)과 슈퍼마켓(74)은 동절기 진입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필수·김지을기자 bungy@

휴대폰 요금 1초 단위로

내년부터 통신비 7~8% 인하 효과

이동통신 요금의 요금부과방식이 10초에서 1초 단위로 바뀌는 등 이통시장의 혁신이 시작됐다.

또 요금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기 이통가입자에 대한 요금이 5~25% 낮아지고 가입비도 6천~1만5천원 인하되면서 1인당 통신비 부담을 월 7천730원씩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8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통사들의 경쟁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기조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7~8% 경감하는 내용으로 통신요금 인하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SK텔레콤, KT, LG텔레콤도 요금인하 계획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은 소비자단체의 지적을 받아온 불합리한 '낙전' 수입을 포기하고 소비자 지향의 요금체계로 조정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현행 모든 요금제의 과금방식을 10초에서 1초로 바꾸기로 했다.

요금인하 정책에 따라 내년에는 1인당 월평균 2천665원, 가계통신비(가구당 2.9명 기준)는 월 7천730원가량, 연간 9만3천원 가량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법원장을 마치고 지난 28년간 몸담았던 정든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오 세 욱 올림

• 사 무 소 : 광주 동구 지산동 375-10 동신빌딩 4층 (변호사 사무소등록실 앞)
• 대표전화 : 062)233-3326, 3327
• 팩 스 : 062)233-3328

디자인비엔날레 오늘의 작품

▶ 배영진 作

'천개의 인형, 천개의 한복'

인형모델이 보여준 한복의 1천가지 아름다움

MBC TV드라마 '궁'의 의상을 제작했던 디자이너 배영진씨가 인형 1천개에 각기 다른 한복을 입힌 작품을 비엔날레 전시관 4전시실의 '옷(衣)'섹션에 출품했다. 〈관련기사 13면〉

이들 인형은 흰저고리와 검정치마, 털을 단 배자와 변형 한복바지, 꽃무늬 포플린 치마 등 조선후기부터 근현대까지의 다양한 한복을 갖춰 입었다.

인형의 얼굴은 8가지이며, 머리모양도 상고머리, 더벅머리 등 세 가지 스타일로 변화를 줬다. 한복은 그동안 그가 발표한 소재와 디자인을 되살려 만들었다.

우리 삶과 밀접했던 한복에 담긴 아름다움과 시대에 따른 디자인 변천사를 보여준다. 전시 후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 기금 모금을 위해 개당 18만원에 판매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